



01

SPECIAL THEME

국내 손해보험의 위험관리/리스크서베이 현황과 발전과제

글 송경석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위험관리연구소 손해사정사(화재특종)

1. 머리말

위험은 순수위험(Pure Risk)과 투기적위험(Speculative Risk)으로 구분할 수 있다(1930 모브레이에 의한 분류). 최근 위험관리라고 함은 주로 기업 혹은 정부의 재무적 위험관리를 다루는 분야로 일반적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리스크 관리’라는 용어는 보험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순수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언더라이팅 Risk Survey 현황 및 발전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보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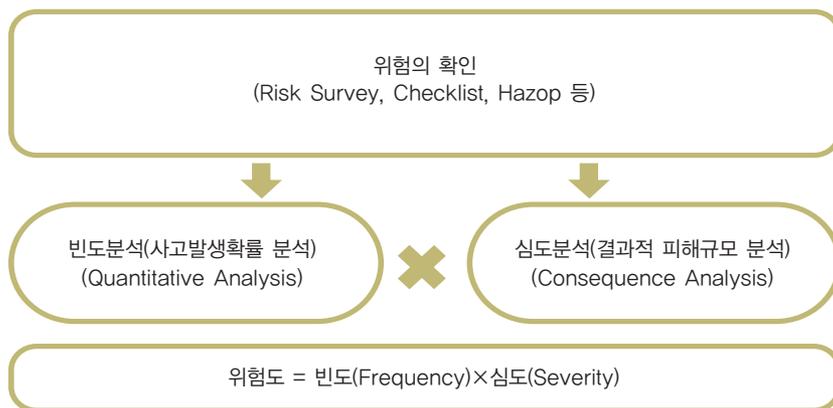
“보험이란 다수의 동종위험에 노출된 경제주체에 의한 우연하고 평가 가능한 금전적 필요의 상호적 충족이다”(A. Manes) 라는 정의가 대체로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에 의해 지지 받고 있다. 이는 보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보상(금전적 필요)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연성 또한 평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보험제도의 유지에 필수적 요소임을 의미하고 있다.

3. 언더라이팅의 목적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험정도를 조사, 분석, 평가하여 그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할 경우 보험료 및 담보조건 등 인수조건 결정, 보유의 결정, 재보험방법의 선택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은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보험회사의 고유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며, 구체적으로는 위험인지 및 평가를 통한 보험가입 신청위험의 선택, 거절, 분류, 적절한 보상범위 및 요율산정, 보험계약증서의 발행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영업활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언더라이팅의 결과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지급능력 등 보험회사의 성장 및 존속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위험관리와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에 가장 필수적 요소인 위험정도의 평가, 분석은 언더라이터의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추상적 개념인 위험을 단순히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구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는 일련의 작업은 이의 보편 타당



[도표 1] 위험분석의 기본적 평가요소

성,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위험분석은 위험성(Hazards)을 손실가능성 정도, 즉 위험도(Risk)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정량적 위험분석, Quantitative Risk Analysis) 이런 정량화된 위험정도가 언더라이터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위험분석의 2가지 중요하고 기본적 평가 요소는 빈도(Frequency)와 심도(Severity)이다. 빈도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심도는 사고발생 정도(손실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주로 이의 조합이 종합적인 위험도라 할 수 있다.



[도표 2] 위험의 빈도 및 심도별 위험관리 방법

보험이란 제도는 위험관리의 재무적 조치(Risk Financing)의 한 방안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위험의 빈도보다는 심도를 더욱 더 중요시 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보상하여야 할 사고의 개념은 사고가 발생한 후의 사고 크기, 즉 손해액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EML, PML(예상최대손실) 등의 사고심도이다. 또한 사고발생의 수학적 통계 및 위험상황의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사고빈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 심도와 빈도를 보험요율 결정목적(충분성, 적정성, 공정성, 안정성, 적응성 등)에 맞게 계량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보험요율이라 할 수 있다.

5.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인수와 위험관리 연관성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인수 즉, 위험인수결정은 ①의무인수 ②계약신청의 거절 ③특정한 계약조건을 첨가하거나 계약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수정한 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일부분 의무인수를(강제보험) 제외하면 대부분은 ②와 ③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다음의 형태 중 한 가지가 사용되거나 혼합되어 사용된다.

가. 손실조정수단의 채택

계약자가 미래의 손실가능성 및 손해액을 감소시킬 조치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예.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경보기 설치, 방화구획 설치 등)

나. 요율 및 요율구조의 변경

기존의 요율구조로는 인수거절하지만 계약자가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회사의 변경된 보험료 산정구조를 따른다는 조건하에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다. 계약조건의 수정

계약자가 신청한 계약의 형태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으로써 공제액의 설정, 최대지급액의 설정, 특정한 원인의 사고는 배제하는 조건 인수

라. 임의재보험이나 공동보험의 활용

계약자의 예상손실액이 거대한 경우 보험자가 이미 체결한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에서 변제할 수 없거나 보험가입금액이 특약재보험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혹은 초과손실액재보험, 공동보험을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조건으로 보험인수상기 손실조정수단채택, 요율구조 변경, 계약조건 수정, 재보험의 결정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상물건의 위험의 평가, 분석 및 정량화 작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더라이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과정과 손해 보험인수의 과정을 대비하면 [도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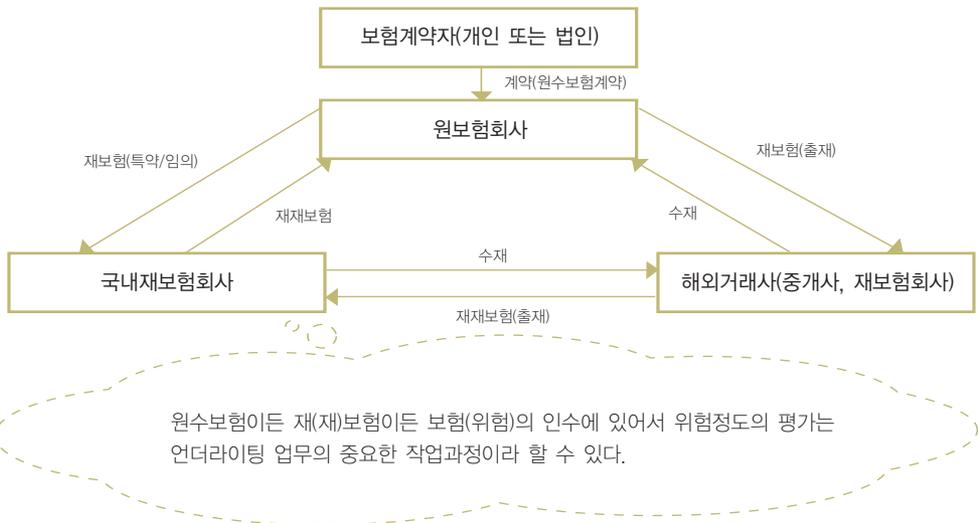


[도표 3] 위험관리 및 보험인수 과정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인수와 관련해서 위험관리의 역할은 대략 [도표 3]의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극히 소액물건의 경우는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개별 물건의 분석을 상기와 같이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재해 리스크별(태풍, 홍수, 지진 등), 위험군별(업종별, 재물, 상해, 배상 등 위험별) 위험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손해를 등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인수여부 판단, 요율결정, 재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 및 Risk Survey 현황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발생에 대비하는 것인데 보험료를 대가로 인수한 위험에 약정된 사고로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자와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원수보험자라하며 보험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분산의 목적으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된 보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 하는 것을 재보험이라 하며 그 인수회사를 재보험회사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위험부담의 다소는 원수보험자가 항상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험부담의 정도는 해당 계약의 보유정도(위험 인수비율)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인수(원수보험 또는 재(재)보험) 목적의 위험관리 혹은 리스크 서베이는 원수보험자든 재(재)보험자든 매우 중요한 언더라이팅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표 4]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조직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형 손해보험회사 위주로 위험관리 조직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인원의 다소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위험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위험관리 조직의 주요 업무는 초창기 해외요율구득 목적의 위험진단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주요 손해보험사

위주로 대형사업장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정량적 위험성평가(CA 등), 기후환경분석, 지진, 쓰나미 등 대재해 위험성 분석, 재난관리 및 기업지속성관리, 화재 및 피난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인간공학에 기반한 산업재해 위험분석 등 손해보험회사 전반적 손해율 관리 및 영업측면에서의 계약자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순수 보험 측면에서의 위험관리(보험물건 인수, 보유, 출재를 위한 언더라이터 업무지원 측면에서의 Risk Survey 및 위험관리)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국내 손해보험 환경적인 면이 제약이 되고 있다.

가. 국내 손해보험 산업 규모는 2008년 전세계 수입보험료 기준 국가 점유율 순위는 12위, 보험료 기준 M/S는 1.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보험종목별 분포도 대부분 장기적립식 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건 별 위험 정도를 평가분석 해야 하는 화재, 특종보험 종목의 대규모 보험물건의 수량이 비교적 적어 언더라이팅을 위한 위험관리 비용 지불 여력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국내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실적 중 <화재+특종보험>이 8.5%에 불과/ <표 1> 참조)

(표 1) 보험산업 상위 10위 국가 점유율(2008년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백만불, %)

국 가	전 체			생 명			손 해		
	순위	보험료	M/S	순위	보험료	M/S	순위	보험료	M/S
미국	1	1,240,643	29.1	1	578,211	23.2	1	662,432	37.2
일본	2	473,197	11.1	2	367,112	14.7	4	106,085	6.0
영국	3	450,152	10.5	3	342,759	13.8	3	107,393	6.0
프랑스	4	273,007	6.4	4	181,146	7.3	5	91,861	5.2
독일	5	243,085	5.7	5	111,278	4.5	2	131,807	7.4
중국	6	140,818	3.3	6	95,831	3.9	10	44,987	2.5
이탈리아	7	140,689	3.3	7	82,623	3.3	7	58,066	3.3
네덜란드	8	112,611	2.6	14	38,899	1.6	6	73,712	4.1
캐나다	9	105,174	2.5	11	47,855	1.9	8	57,319	3.2
한국	10	97,023	2.3	8	66,417	2.7	12	30,606	1.7
소 계		3,276,399	76.8		1,912,121	76.9		1,364,268	76.6

* 출처 : SwissRe Sigma No. 3/2009

나. 손해보험사에서 다루는 많은 보험종목들이 협정요율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인수 시 언더라이터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다. 아울러 위험관리의 기능(위험의 평가, 분석, 조치) 또한 일부 규모가 큰 재물보험에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석유화학 플랜트,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보험인수 시 국내보유는 미미하고 대부분 해외로 출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에 따른 물건의 위험평가, 분석, 요율산정 등이 해외 재보험사 또는 해외브로커 사에서 처리되고 있어 리스크 서베이 또한 그들 소속 조사자가 많은 부분 처리하고 있다.

라. 1985년 국내외 재보험거래의 자율화 시책이 도입되었고 1990년부터 의무출재비율 완전자율화 이후 재보험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재보험 수수료 수입에 안주하려는 정책이 여전하며 이에 따라 자본금과 임의적립금 확충을 통한 담보력 강화에 소극적이며 재보험 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기술, 경영, 정보의 습득을 경시하게 만들어 보험거래의 전문성에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표 2〉 국내 손해보험사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2009.4.1-2010.3.31)

(단위 : 백만원)

	화 재	특 종	해 상	자동차	장 기	개인연금	합 계
메리츠	32,571	208,087	81,238	691,776	2,196,832	77,544	3,288,048
한 화	32,770	160,972	49,560	659,186	1,703,613	78,711	2,684,812
롯데	10,556	70,617	17,743	423,565	828,267	51,664	1,402,412
그린	12,711	46,956	11,922	128,687	618,254	4,553	823,083
흥국	13,221	61,635	20,929	395,177	1,390,484	16,956	1,898,402
삼성	44,423	899,688	222,027	3,148,219	5,765,479	815,293	10,895,129
현대	31,032	563,297	195,949	1,673,923	3,750,222	252,210	6,466,633
LIG	33,569	613,797	104,941	1,241,298	3,204,980	275,882	5,474,467
동부	59,637	401,288	74,355	1,488,208	3,745,664	211,316	5,980,468
합계	270,490	3,026,337	778,664	9,850,039	23,203,795	1,784,129	38,913,454
비율	3381125.0%	37829212.5%	9733300.0%	123125487.5%	290047437.5%	22301612.5%	486418175.0%

* 출처 : 손해보험지 2010년 6월호

주) 특종보험은 해외원보험 및 공제실적 포함

7. 발전과제 및 맺음말

보험의 효용은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효용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사회적 효용은 재해자의 사회적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공헌하는 순기능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보험의 경제적 효용은 단지 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충해 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험은 사고발생 자체의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사고발생 자체가 감소하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경감되고 피보험자 또한 경영상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의 사회적 순기능인 사고예방 및 경감 목적의 연구 및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위험관리(또는 리스크 서베이)가 20여 년의 역사 속에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 시장의 협소, 언더라이터의 제한적 의사결정권, 담보력 약화 및 재보험 의존 등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손해보험 산업에서 위험관리의 기능은 보험물건의 인수여부 판단, 요율구득, 출수제 의사결정 등 언더라이터의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평가,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해 왔



다. 이제 보험산업도 사회적 순기능인 사고예방 및 경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위험관리의 기능 또한 사고 발생 전의 예방 및 경감(Risk Control)에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2009년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를 달리고 있다. 기술력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는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기반시설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위험관리 및 리스크 서베이 인력 또한 이러한 발달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현장 서베이 및 위험성 평가 경험을 아울러 쌓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 산업에서 위험에 기반한 언더라이팅 체계가 활성화되고 국내의 경험 있는 조사자(Surveyor)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험산업에서의 순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재물보험에 한정되어 있던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분야를 배상책임, 산업재해, 상해성 분야로 확대 한다면 회사의 수익성 증대는 물론이고 보험의 경제적 효용의 하나인 손해발생방지라는 사회공익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위험관리와 보험』, 한낙현, 김흥기 / 우용출판사
2. 『한국의 위험과 보험이야기』, 정홍주 / 문영사
3. 『Insurance World 2010년 1월, 5월호 Special report』, 코리안리(주)
4. 『효율적 위험분석 시스템의 연구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위험관리 주제발표』 정창기
5. 『손해보험 2010년 6월호 / 손해보험 사업현황』, 손해보험협회
6. 『재보험자율화에 따른 손보사의 리스크 관리전략』, 김동훈